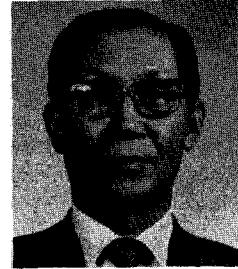


기술혁신이

생존의 길



오 봉 국

- 본회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 한국양계박람회 추진위원장

양계산업이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분석해 보면 그 중요도가 쉽게 나타납니다.

그간 양계산업은 민간주도로 발전하여 선진양계산업의 입지를 겨냥해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는 국내 생산자들간의 경쟁만으로 계속 증가해 가는 축산물 소비에 힘입어 발전을 하여 왔으나 이제부터는 생산비 면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양계산물 수출국의 값싼 상품과 경쟁을 해야하는, 즉 싸울 상대를 하나더 곁에 붙인 상황에서 양계업을 계속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부터 급속한 구조변화가 가속화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회에서 이를 감안하여 조속한 시간내에 양계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자 양계산업박람회를 계획하여 오던 중 지난 '91년에 제1차 양계산업박람회를 개최, 참관 인원 3만명 돌파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본회 회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양계인, 양계관련업체 및 단체, 농림수산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인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사료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회와 추진위원회에서는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행사에서 보여주는 행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미진함으로 참관자에게 불편함을 드렸던 점을 관용과 깊은 이해로 수용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공원내의 전시행사는 주차의 용이함 이외는 체육관이 전시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자재 전시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파손 위험부담이 있고, 일반 대중교통수

단이 연계성은 있으나 서울지리에 익숙지 못한 분께는 전시자나 참관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분석하여 제2차 양계산업 박람회 개최시에는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년 제1차 양계산업 박람회가 개최되던 지난해와 같이 '93년에 개최예정인 양계산업 박람회도 전시행사만으로 국한하여 소모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제시와 생산자간의 유대강화, 소비확대를 위한 양계산물의 우수성제고에 역점을 두고 행사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제1차 양계박람회를 개최한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개최 전의 업계동향과 1주년을 맞이하는 작금의 동향을 비교할 수 있는 바, 이제는 새로운 변화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아닌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시설자동화도 의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계산업 박람회의 개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개방 일정이 코끝에 서있는 만큼 환경문제, 노동력문제, 위생문제 등이 한꺼번에 양계산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계인들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가는데 있어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정보수집,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자 교육홍보 등을 병행해 나아가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계산업이 추구해갈 방향은 생산

성을 향상시켜 생산비를 낮추고, 고품질의 계산물을 생산하여 시장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종계의 선택, 과학적인 사양관리, 철저한 위생관리가 주축이 되고, 구조개선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현대식 계사구조, 계사내의 시설과 가자재를 올바르게 선택, 설치 운영하는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것만이 한국양계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올바르게 생산자에게 전달하여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자 '93년 8월19일~21일(3일간)까지 KOEX 본관 3층에서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설과 기자재를 유치 전시토록 하며, 세계가금학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연합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17개 회원국 학자 및 양축가들까지 참가를 할 수 있게 하여 폭넓은 정보교환 장소를 마련할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1차 박람회의 경험도 쌓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이 기초단계를 벗어나 본래도에 오를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 가므로 양계인 및 양계관련인, 그리고 농림수산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한 조화를 이룬다면 제2차 '93한국양계산업박람회는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제적인행사에 손색이 없도록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어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1차 '91년양계산업박람회 개최 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말씀을 지면을 통해 대신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계